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남미 경제의 동향 분석 및 전망

최 성 규 / 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I. 머리말	IV. 한-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II. 2008년 중남미 경제의 특징	V. 맺음말
III. 2009년 중남미 경제 전망 및 주요국 동향	

< 요약 >

2003년부터 2007년간 중남미 경제는 1차 상품의 국제가격 상승에 힘입은 수출 증가, 소비와 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내수 호황 등으로 인해 연평균 5%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하였다. 2008년 들어서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호조로 성장세를 이어나갔으나, 하반기 들어 국제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3년만에 적자로 반전되고 FDI와 해외근로자 송금 규모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2008년 국가별 경제성장률은 우루과이(11.5%), 페루(9.8%), 파나마(9.2%), 아르헨티나(7.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멕시코는 미국 경기 침체로 연중 저성장 기조를 보인 반면, 브라질은 과거 15년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2009년 중남미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지속, 이에 따른 수출 및 FDI 유입 감소 등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남미 각국은 확대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개선된 경제체질을 근간으로 동유럽, CIS 등에 비해 경제위기로부터 강한 내성을 보여주고 있어, 과거와 같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외환위기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교역과 투자는 불리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상품수지 흑자 규모에 있어서 중남미는 EU에 이어 제2의 흑자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최근 중남미 국가들은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재원과 경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개발수요를 좋은 기회로 삼아,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프로젝트 참여 확대, 자원공기업과 협력 강화 등 대 중남미 경제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I. 머리말

2004년부터 시작된 중남미 경제의 성장세는 2008년 9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지난해 중남미 경제는 상반기까지 이어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소비 및 투자 호조, 공공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연 4.6%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3/4분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 심화, 실업률 증가 및 소비 둔화,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가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국제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폭락에 따른 수출 감소, 세원 축소, 통화가치 및 주가 폭락 등 거시경제 불안 양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중남미 지역은 만성적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인플레이 압력 심화, 과도한 대외채무 비중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더욱 심각한 외환유동성위기 혹은 외채위기를 경험¹⁾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남미 국가들은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등 위기대처능력이 한층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남미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과거 수년간 흑자를 유지해왔으며, 각국의 신중한 외채관리 정책에 힘입어 2004년 37%에 달하던 GDP 대비 총외채 비중 역시 2008년 20%대로 하락하며 빠른 추세로 개선되었다. 또한 총수출 대비 연간 외채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D.S.R.도 26%에서 사상 최저치인 13%로 낮아졌고, 외환보유액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등 대외지급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최근 중남미 각국들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지원, 감세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확대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추진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중남미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 경제의 회복 지연과 국제 원자재 시세 하락 등으로 수출이 3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2007년 이후 중남미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민간소비와 투자는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감소, 재정상황 악화 및 FDI 유입 감소 등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등 고위험 국가의 추가적인 디폴트 선언 여부도 중남미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잠재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 중남미 지역은 1980년 이후 총 6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며, 경제위기 직후 평균 2년 이상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음(IDB 총재 인터뷰, 2009. 3. 5)

향후 중남미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 시점과 맞물려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중미 국가들은 미국 경제 회복과 해외근로자 송금 확대 등이 경제성장의 선결 조건이 될 것이며, 남미 국가들의 경우 국제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이 필요하다. 결국 2009년은 중남미 국가의 경제체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 본고에서는 2008년 중남미 경제의 주요 특징과 주요국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2009년 중남미 경제 및 한-중남미 경제협력 등에 대해서도 전망코자 한다.

<표 1> 중남미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 십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e
GDP 성장률	4.9	5.8	5.7	4.6
1인당 GDP 성장률	3.6	4.4	4.4	3.3
소비자물가상승률	5.9	4.9	6.4	8.8
경상수지	36.9	49.9	19.2	-26.9
경상수지/GDP	1.4	1.7	0.6	-0.3
상품수지	82.4	95.0	68.7	47.9
수출	563.6	691.4	778.6	919.6
수입	481.2	596.4	709.9	871.7
재정수지/GDP	-1.1	0.1	0.4	-0.3
총외채	673.5	662.9	733.9	761.5
총외채/GDP	28.4	23.7	22.7	20.2
외채상환액/수출(D.S.R.)	24.6	22.4	16.6	13.9
외환보유액	263.3	321.0	459.7	500.0

자료 : ECLAC²⁾,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ec., 2008 및 EIU, *Viewsw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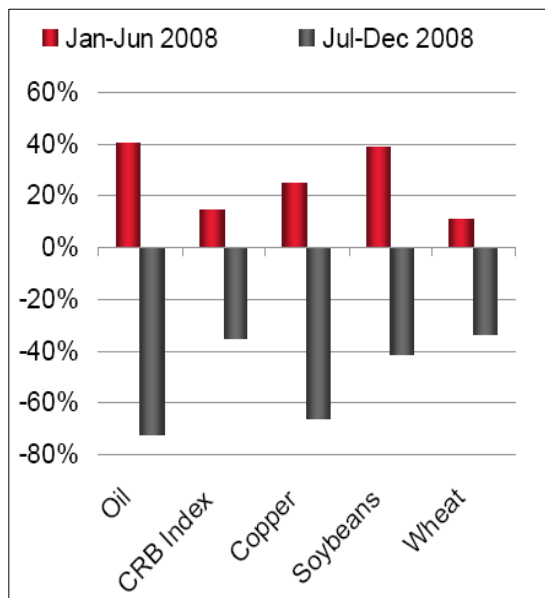
2) ECLAC은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유엔 중남미 경제위원회)의 약자임.

II. 2008년 중남미 경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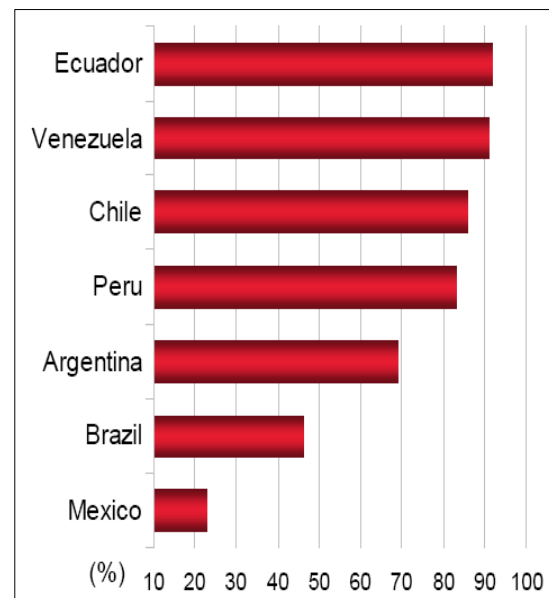
1. 미국발 금융위기와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3/4분기 이후 성장세 둔화

2008년 중남미 지역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확대,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상반기 중 석유와 대두의 국제가격은 전년 대비 40%, 구리 가격은 25% 이상 상승하였으며, 2005년 이후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농산물 작황 호전 등으로 절대적인 생산량(volume)도 크게 증가하여, 수출은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자원과 내수 시장을 겸비한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으로 FDI가 꾸준히 유입되었고, 개선된 재정수지를 근간으로 상당수의 국가가 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등에 공공지출을 크게 늘렸다. 또한 국가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도 우호적인 대외여건에 따른 풍부한 외화유동성 확보 및 공공지출 확대 등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유지하여, 중남미 경제의 성장세는 2008년에도 지속되는 듯 하였다.

<그림 1> 2008년 원자재 가격 변동 현황



<그림 2> 각국의 1차 상품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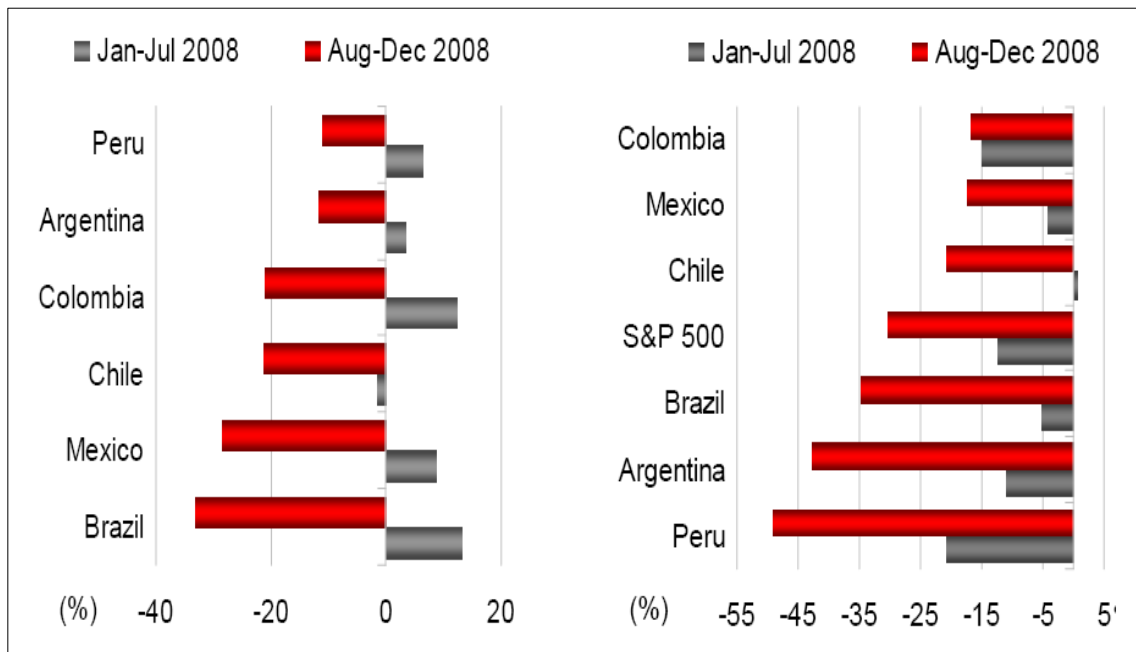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그러나 하반기 들어 세계 경기가 둔화 양상을 보이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주요 수출 원

자재인 석유와 구리는 하반기에만 전년 대비 70% 이상 국제시세가 하락하였으며, 대두, 밀, 설탕, 커피 등 농산물 가격도 40% 이상 폭락하였다. 중남미 각국의 주식시장은 세계 경기침체와 원자재 시세 하락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원개발 관련주를 중심으로 콜롬비아, 멕시코 등은 30%(연초대비),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등은 40%~60% 이상 급락하였다.

수출, 외국인투자, 해외근로자 송금 등 주요 외화수익원의 유입이 불투명해지고 주식시장의 외국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 8월 이후 각국의 환율도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고 비정상적인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어, 하반기에만 칠레(peso), 멕시코(peso), 브라질(real) 등 주요국의 통화가치가 20~30% 이상 폭락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금융 불안과 해외노동자 송금 축소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주요 수입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2008년 3/4분기 이후 중남미 경제는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4/4분기에는 대부분 국가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2008년 중남미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³⁾하는데 그쳤다.

<그림 3> 중남미 금융시장 불안 양상 (좌 : 환율 변동, 우 : 주가 변동)



자료: Fitch

3) 2008년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아시아(7.8%), 중동(6.1%), CIS(6.0%), 아프리카(5.2%), 중남미(4.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선진권은 EU(1.3%), 미국(1.1%), 일본(-0.3%) 등의 순이었음(IMF).

2. 해외송금 증가세 둔화, 인플레 우려 등으로 내수 경기 위축

2007년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경기는 2008년 상반기까지 호황을 누렸으나, 하반기 이후 점차 위축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의 증가, 실업률 감소 등에 힘입어 민간 소비는 증가하였지만, 인플레 우려로 인해 중남미 각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업금융과 민간 신용대출 등 신용증가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또한 하반기 들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세계 경기침체로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증가세가 둔화⁴⁾되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6.6%에 못 미치는 4.6%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내수 경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근로자 송금과 고용지표는 2008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개선(증가) 추세는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중남미에서 해외근로자 송금⁵⁾은 FDI⁶⁾에 이어 제2대 자본조달 창구로서 민간소비 촉진 및 경상수지 흑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대 중남미 해외송금 규모는 2002~06년중 연평균 19%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히스패닉의 실업률 증가 및 소득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0.1% 증가한 611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국가별 해외송금 유입 규모를 살펴보면, 대미 의존도가 높고 중남미 전체 해외송금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는 전년 대비 6% 이상 줄어든 2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 중미 국가⁷⁾는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중남미의 실업률은 2003년 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8년에는 7.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고용 증대와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은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상반기까지 중남미 각국의 저축 증대 및 민간 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4/4분기 이후부터는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과 기업도산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급증세로 반전된 상황이다. 국가별로는 코스타리카(4.8%)와 멕시코(4.9%)가 5%대 미만의 실업률을 기록하여 가장 안정적인 고용상태를 유지하였고, 콜롬비아(11.5%), 자메이카(11.1%), 도미니카(공)(14.0%)은 두자리수를 상회하는 실업률을 기록하여 고용상태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 2008년 3/4분기 이후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8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개도국⁸⁾ 해외근로자 송금 규모는 약 2,4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중남미 지역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음.

6) 2008년중 대 중남미 FDI 순유입액은 818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7) 2008년 GDP 대비 해외송금 비중은 온두라스(25%), 아이티(20%), 자메이카(19%), 엘살바도르(18%), 과테말라(11%) 등의 순으로 나타날 정도로, 중미국가에서 해외송금은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표 2>

중남미 각국의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 가	2006	2007	2008e	GDP 비중(2007)
아르헨티나	541	604	604	0.2
볼리비아	612	927	927	6.6
브라질	4,253	4,382	4,500	0.3
콜롬비아	3,928	4,523	4,523	3.0
코스타리카	513	635	635	2.3
도미니카(공)	3,084	3,414	3,575	9.3
에콰도르	2,934	3,094	3,200	6.9
엘살바도르	3,485	3,711	3,881	18.4
과테말라	3,700	4,254	4,472	10.6
온두라스	2,391	2,625	2,820	24.5
멕시코	25,052	25,037	23,936	2.8
니카라과	698	740	771	12.1
우루과이	89	97	100	0.4
베네수엘라	165	136	170	0.1
전 체	57,384	61,000	61,095	1.7

자료 : EIU

3.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반전

2006~07년 중 중남미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는 쌍둥이 흑자를 기록하였다. 1990년대 이후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던 중남미의 경상수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제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흑자로 반전하고, 관광업 호조에 따라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크게 감소되는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의 지속적 유입으로 경상이전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다.

2008년에는 수출이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한 9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입은 상반기에는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 인상, 하반기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22% 이상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34% 이상 감소한 452억 달러에 그쳤다. 또한 연평균 20%에 달하던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이 0.1% 증가하는 데 그치고 무상원조 규모가 축소되면서 두자리수대 증가율을 유지해 오던 경상이전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었다. 반면, 외국기업에 대한 배당금 확대 등으로 소득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110억 달러를 기록하고, 보험, 통신, 운수 등 사용료 지급 확대 등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전년 대비 54% 이상 증가하면서, 2008년 중남미의 경상수지는 265억 달러 적자(GDP 대비 0.6%)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1차 상품 의존도가 70%를 상회하여 상반기 중 국제 원유 및 농산물 가격 상승의 혜택을 많이 누렸던 베네수엘라(석유), 아르헨티나(농산물), 에콰도르(석유), 볼리비아(천연가스), 트리니다드토바고(천연가스) 등 5개국을 제외하고는 중남미 모든 국가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브라질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반전하였으며, 자원 생산 비중이 낮은 중미 국가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10% 이상에 달하였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 반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의 꾸준한 유입에 힘입어 2008년 중남미의 국제수지는 530억 달러 흑자를 유지하였다. ECLAC과 IIF에 따르면, 2008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820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7년의 상승세를 이어나갔으나, 2007년 157억 달러에 달했던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106억 달러 순수출을 기록, 2008년 민간자금흐름 규모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자금흐름은 멕시코의 브래디 본드 조기상환,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채무탕감, 각국의 적극적인 외채상환 정책 등에 따라 2004~06년간 순수출을 기록하였지만, 2007년부터는 차관공여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채무재조정 및 탕감 대상 규모 축소 등에 힘입어 순수입으로 반전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 대중남미 국제자금흐름 추이 및 전망⁸⁾

단위 : 십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민간자금흐름	70.0	51.5	183.6	89.0	43.1
직접투자	47.1	26.2	65.7	58.9	43.7
포트폴리오투자	5.1	2.7	15.7	-10.6	-1.7
금융기관 대출	8.6	9.0	30.8	8.6	-11.7
비금융기관 대출	9.2	13.5	71.3	32.1	12.8
공적자금흐름	-28.5	-20.3	3.8	7.9	8.3
총자금흐름	41.5	31.2	187.4	96.9	51.4

자료 : IIF,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January 2009.

중남미 재정수지도 2008년 들어 적자로 반전되었다. 이자비용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1.6%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재정수지(overall balance)는 GDP 대비 0.3% 적자를 기록하였다. 세입 규모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원이 축소되고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⁹⁾으로 수출세가 감소하면서 GDP의

8) 동 통계 수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 자금 흐름 규모가 상당 규모가 되는 국가에 한정됨.

19.2%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소폭 축소되었고, 정부 지출은 석유, 전력 등 공공요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중남미 주요국의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GDP의 19.7%로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원자재와 농산물 수출국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파라과이, 페루 등 5개국만이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였으며, 나머지 국가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에콰도르 디폴트, 아르헨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신인도 악화

2008년 S&P, Moody's, Fitch 등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등급조정 결과는 2008년 중남미 경제상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2008년 8월 이전에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없이, 상당수 중남미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이루어졌다. 2008년 2월, S&P는 2007년 중남미 최고 경제성장률 기록, 재정상황 개선, 파나마 운하 공사의 순조로운 진행 등을 감안하여 파나마의 국가신용등급을 BB+로 한단계 상향조정하였고, 3월 Moody's는 국제 원유가격 상승세와 이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을 이유로 에콰도르 등급도 Caa2에서 B3로 2단계 올린 바 있다. 이후 주요 평가기관들은 브라질과 페루에 대해 물가상승률 안정적 유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고려하여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콜롬비아와 우루과이에 대해서도 등급을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 중남미 국가에 대한 무더기 하향조정 발표가 이어졌다. 통상 경기하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즉각적인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중남미의 경우에는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재정상황과 대외지급능력 악화 우려가 있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 8월부터 선제적인 등급하향조정이 이루어졌다.

에콰도르 정부는 2008년 11월, 과거 글로벌본드 발행시 국내 절차상 불법적 조항이 있었다는 '외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근거로 2012년과 2015년 글로벌본드에 대해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¹⁰⁾하였으며, 발표 직후 S&P, Moody's는 에콰도르 신용등급을 디폴트 등급으로 하향조정¹¹⁾하였다. 또한 S&P는 아

9) ECLAC에 따르면, 중남미에서 1차 상품 수출이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비중은 1998년 GDP의 2.8%에서 2008년 7.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에콰도르 정부는 글로벌본드에 대한 채무불이행 이외에도 다자간 금융기관 차관(45개 사업), 이국간 차관(주로 브라질, 스페인, 이태리) 등에 대해서도 이중지급, 불공정조항, 과거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채무재조정 사업으로 분류

11) 에콰도르 정부는 2009년 3월에도 글로벌본드(2030)에 대한 135백만달러의 이자 상환 지급을 거부하였음.

르헨티나에 대해 국제농산물 가격 폭락, 인플레이 우려 지속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8월과 10월에 걸쳐 2단계 등급을 내렸으며, 최근 Moody's도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추가 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Fitch는 10월, 외채지표 악화현상이 심화되고 외환보유액 감소,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 등으로 유동성 위기 우려가 있는 자메이카에 대해서도 등급 조정을 하였고, 12월에는 석유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90%에 달하고 인플레이 수치가 30%를 상회하는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S&P는 2004년 이후 모범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하고 2007년까지 연평균 8%대 이상의 경제성장을 유지해 온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해서도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중남미 지역의 국제신인도는 하반기 이후 소폭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4> 2008년 중남미 국가신용등급 변동 추이

구분	국가	변경시점	신용평가기관	변경내용
상향조정	파나마	'08. 2	S&P	BB → BB+
	에콰도르	'08. 3	Moody's	Caa2 → B3
	페루	'08. 4	Fitch	BB+ → BBB-
	브라질	'08. 4	S&P	BB+ → BBB-
	브라질	'08. 4	Fitch	BB+ → BBB-
	콜롬비아	'08. 6	Moody's	Ba2 → Ba1
	페루	'08. 7	S&P	BB+ → BBB-
	우루과이	'08. 7	S&P	B+ → BB-
	페루	'08. 8	Moody's	Ba2 → Ba1
하향조정	아르헨티나	'08. 8	S&P	B+ → B
	아르헨티나	'08. 10	S&P	B → B-
	에콰도르	'08. 11	Moody's	B3 → Caa1
	에콰도르	'08. 11	S&P	B- → CCC-
	자메이카	'08. 11	Fitch	B+ → B
	베네수엘라	'08. 12	Fitch	BB- → B+
	에콰도르	'08. 12	S&P	CCC- → SD
	에콰도르	'08. 12	Fitch	CCC → RD
	에콰도르	'08. 12	Moody's	Caa1 → Ca
도미니카(공)	'08. 12	S&P	B+ → B	

자료 : 필자정리

Ⅲ. 2009년 경제 전망 및 주요국 동향

1. 2009년 경제 전망

가.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제로 전파,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높아

2009년 중남미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가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2004년 이후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수출, FDI, 해외근로자송금 등 대외부문이 크게 위축되고 실업률 상승 및 소득 감소, 빈곤층 확대 등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 즉 내수 경기가 크게 침체될 것으로 보여, 2002년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 심화¹²⁾, 국제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회복 지연,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¹³⁾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품수지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반전되고 적자규모는 30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3년간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유지하던 경상이전수지는 해외근로자송금 유입규모가 금년에 10% 이상 축소될 것으로 보여, 경상수지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IIF 전망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도 주요 투자국의 경기침체, 기업환경 악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자원개발 부문 투자 매력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56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라 공공지출은 전년 대비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총 투자증가율은 마이너스(-7%)가 예상되고 GDP에서 총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년만에 20% 이내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남미 주요국의 실업률이 1월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산업생산¹⁴⁾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 내수 경기 위축 현상도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대외채무의 경우, 총외채잔액은 2008년 8,600억 달러 규모에서 2009년에는 7,9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달러 기준 GDP 규모 축소로 인해 GDP 대비 총외채비중은 2008년 20.7%에서 23%대로 확대되고

12) 2009년 미국의 수입규모는 전년 대비 2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13)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2008년 하반기부터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음.

14) 2009년 1월 브라질의 산업생산은 통신장비와 자동차산업 위축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하였으며, 콜롬비아는 9.2% 감소하였음.

D.S.R. 지표 역시 총수출 감소와 외채상환원리금 규모 증가로 인해 2008년 14%에서 17.6% 확대될 것으로 보여, 외채상환부담이 다소 가중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기구 및 경제분석기관들은 중남미 경제에 대해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교적 일찍 경제전망을 내놓은 IMF와 세계은행은 2% 이상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2009년 3월 전망치를 발표한 EIU, IIF, Fitch 등은 미국의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2009년 -3.1%),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및 FDI 감소, 내수 위축 심화 등을 이유로 모두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페루(3.4%), 칠레(0.4%), 온두라스(1.4%), 과테말라(1.2%), 니카라과(1.2%) 등을 제외하고, 멕시코(-2.6%), 브라질(-0.4%), 콜롬비아(-1.0%), 아르헨티나(-2.8%)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중남미 주요 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

단위 : %

평가기관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¹⁾			경상수지/GDP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IMF(2008.10)	5.6	4.6	3.2	5.4	7.9	7.2	0.4	-0.8	-1.6
World Bank(2008.10)	5.7	4.4	2.1	6.3	6.9	5.4	0.5	-0.6	-0.3
EIU(2009.3)	5.4	4.0	-0.9	5.3	8.0	8.4	0.6	-0.3	-1.3
IIF(2009.3)	5.4	4.3	-0.3	6.0	8.3	7.7	0.8	0.0	-2.0

주 : 1. 세계은행은 GDP 디플레이터, 나머지는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9*, December 2008.

EIU, Viewswire.

IIF, *Regional Overview : Latin America*, March 2009.

나. 다양한 경기부양정책 발표, 그러나 효과는 미지수

2008년말부터 중남미 각국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감세 및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정책(fiscal stimulus)을 발표하고 있다. 우선 멕시코는 2008년 10월과 2009년 1월 '경제성장 및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a para Impulsar el Crecimiento y el Empleo)'과 '가정경제와 고용을 위한 국민협약(Acuerdo Nacional en favor de la Economía Familiar y el Empleo)'을 발표하였다.

<표 6>

중남미 각국의 경기부양 대책

국 가	주요 내용(요약)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은행, 2009년 상반기 만기 도래 국공채 매입 ○ 주요 농산품에 대한 수출세 축소 (밀, 옥수수, 과일 등) ○ 섬유, 철강,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허가제 실시 ○ 생산부(기존 경제생산부 분리) 신설 및 금융 지원 확대 (40억 달러) ○ 에너지, 광업, 통신, 교통 등 인프라 확충에 310억 달러 재정투입 ○ GDP 1.5% 수준의 퇴직노후연금 지원 ○ 직원 10인까지 고용등록세 면제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금융기관 지분 인수 가능 및 신용보증 확대 ○ 2009년 공공투자 규모 88억 달러로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보증기금(25억 달러) 조성, PAC 재정투입 확대 등 ○ BNDES, Petrobras에 53억 달러 지원 ○ 농촌가정안정을 위한 기금 조성 등에 65억 달러 지원 ○ 2009년 최저임금 12% 이상 인상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고용 및 사회보험혜택 확대 등 고용지원(80.5억 페소) ○ 휘발유 및 LPG 가격 요금 인하, 근로자 및 공무원 주택기금 확대 등 가정경제 지원 (81.5억 페소) ○ 중소기업 용자 확대 및 각종 공공요금 동결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 (3,970억 페소) ○ 재정투자 조기 집행, 공기업 투자 확대 등 SOC 확충(6,660억 페소)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대폭 인하 ('09년 중 350bp) ○ 법인세 인하(중소기업 17%→ 2%, 대기업 17%→10%) ○ 산업진흥청을 통한 여신 및 보증지원 확대 ○ 구리광산 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10억 달러 재정지원 ○ 청년(18→24세)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고용확대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가구당 약 62달러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인프라 확충에 55조 페소(정부 23조, 민간 22조) 투입 ○ 정책금리 인하 ('09년중 150bp) ○ 인지세 및 소득세 등 감세정책 추진 ○ 사회보장예산 전년 대비 42% 증액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 ○ 2009년 1월 14.5억 달러(GDP의 1.1%)의 경기부양책 발표 ○ 저소득층 등 사회보장지원에 97백만달러 지원 ○ 재정지출시 조세안정기금(GDP의 1.5%, 17억 달러) 적극 활용

자료 : 필자정리

칠레 정부는 2008년 재정수지 흑자 목표를 2008년 0.5%에서 2009년 균형으로 낮추고 약 60억 달러(GDP의 3.5%)에 달하는 재정을 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조기 집행할 예정이며, 페루도 사회보장 부문과 비전통부문 수출업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에 약 32억 달러(GDP의 2.4%)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 브라질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지분 인수 가능 및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중앙은행 개입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투자 규모를 88억 달러로 증액하고 국책은행인 BNDES(경제사회개발은행)을 통해 향후 2년간 국영석유공사 자금지원,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지원 등에 1,000억 헤알의 여신을 공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하에서 동 경기부양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의 근거로는 현재 중남미 주요국의 공공부채가 다소 과도한 수준이고 2009년 들어 주요국의 세입이 급감¹⁵⁾하고 있어, 금년 중남미 국가들이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2009년에는 상당수의 국가가 대선, 총선, 국민투표 등을 치를 예정이어서,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육성, 고용창출 등에 보다는 선심성 정책에 재정지출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재원 충당의 상당부분을 외자에 의존하도록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제자금흐름 및 외국인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있어,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각국 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중남미 대선 일정



자료 : Fitch

<표 7> 중남미 총선 및 국민투표 일정

국가	일정
엘살바도르	2009. 1
볼리비아(국민투표)	2009. 1
베네수엘라(국민투표)	2009. 2
멕시코	2009. 7
아르헨티나	2009. 10
콜롬비아	2010. 3
도미니카(공)	2010. 5
베네수엘라	2010. 12

15) 2009년 1월, 브라질의 기초재정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다. 일부 국가의 유동성 문제, 중남미 전체로 확산되지는 않을 듯

앞에서 언급한 다소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의 대외신인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과거 멕시코와 칠레에만 한정된 투자적격국가는 브라질, 페루 등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 중남미 경제위기 당시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 등 8개국의 국제스프레드가 Global EMBI+를 상회하였던 것에 비해, 현재에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 3개국만이 세계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 대비 총외채잔액은 7,900억 달러로 거의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외환보유액은 2002년 1,650억 달러에서 2008년 5,0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한 점 역시 과거와 달리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다.

<표 8> 중남미 주요국 국제 스프레드(EMBI+) 변화 추이

단위 : b.p.

	2005	2006	2007	2008	2009. 1. 30
EMBI+ Global	245	169	239	690	633
EMBI+ Latin	283	186	268	722	693
아르헨티나	504	216	410	1,694	1,495
브라질	311	192	221	415	409
칠레	79	84	151	351	392
콜롬비아	238	161	195	486	472
멕시코	126	98	149	360	411
페루	206	118	178	493	416
베네수엘라	318	182	506	1,862	1,730

자료: Bloomberg.

그러나 여전히 잠재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에콰도르는 2009년 3월 글로벌 본드(2030)에 대해 재차 디폴트 선언을 하였고, 향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악화,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신규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도 외환보유액이 460억 달러에 달하지만, 2009년과 2010년 도래하는 원리금 상환금액이 380억 달러에 육박하고 파리클럽에 상환해야할 채무가 6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등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체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IMF, 세계은행, IDB, CAF, CABEI 등 국제개발은행 및 국제기구 등이 중남미 국가의 거시경제안정과 유동성 공급에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면, 중남미 일부 국가의 유동성 위기가 중남미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2. 주요국 동향

가. 멕시코 : 미국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 및 내수 위축 불가피

<표 9>

멕시코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국 내 경 제	경제성장률	3.2	5.1	3.3	1.4	-2.6
	물가상승률	4.0	3.6	4.0	5.1	4.8
	재정수지/GDP	-0.1	0.1	0.0	-0.1	-3.2
대 외 경 제	경상수지/GDP	-0.5	-0.4	-0.8	-1.5	-3.4
	상품수지	-76	-62	-100	-168	-225
	수출	2,142	2,499	2,719	2,918	2,279
	수입	2,218	2,561	2,819	3,086	2,504
	외환보유액	740	762	871	951	902
외 채 지 표	총외채잔액	1,679	1,607	1,794	1,836	1,736
	총외채/GDP	19.8	16.9	17.5	17.7	22.7
	D.S.R	17.5	18.8	15.5	14.5	19.3

자료 : EIU

2008년에도 멕시코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계속되었다.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 주요 국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3/4분기 이후 급격한 경기위축 현상이 나타났지만,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및 외국인투자 유입 축소, 미국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감소와 이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연중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중남미 국가 중 최저 수준인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8년 멕시코 수출은 미국의 소비 둔화로 인해 자동차, 전자제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3/4분기까지 이어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증가¹⁶⁾에 힘입어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2,9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 증가율이 4.9%에 수준에 머물렀으나, 브라질, 페루, 중미 등 중남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은 캐나다, EU, 중남미 등으로부터 자본재,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3천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멕시코 상품수지

16) 2008년 멕시코의 원유수출은 506억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음.

적자 규모는 1994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1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2007년에는 자동차, 전자제품, 금융업 및 광업 등에 투자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된 데 힘입어 357억 달러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국, 스페인 등의 주요 투자국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213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또한 멕시코의 내수 경기를 뒷받침해주던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액은 미국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히스패닉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2000년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¹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멕시코 내수 경기는 공공지출 감소,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격한 신용경색, 실업률 상승¹⁸⁾ 및 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연중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민간소비 부문은 1/4분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소비자신뢰지수도 2006년말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였다. 과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오던 자동차 산업도 연간 판매대수가 전년 대비 6.8%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제조업 생산은 '08년 10월 이후 마이너스로 반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이후 주가지수(IPC)¹⁹⁾와 폐소화가치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멕시코의 주식시장 규모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전인 2008년 8월경에는 4,200억 달러 규모였으나, 2009년 1월 현재 시장규모는 2,20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2008년초 11.0 수준이던 달러당 폐소화 환율은 2009년 3월초 15.5까지 상승하는 등 심각한 고환율 현상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소화 악세 때문에 멕시코 정부는 여타 신흥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2008년 상반기 중 7.5%의 정책금리를 유지해 왔으나, 2008년 7월 이후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 상승 압력이 있자 정책금리를 3개월에 걸쳐 8.25%까지 인상하였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말까지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가, 재정, 외채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들은 중남미 국가 중 매우 양호하여,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EMBI 지수는 2008년도말 기준으로 신흥시장 평균(EMBI+ Global)인 690을 훨씬 하회하는 360을 기록하여 안정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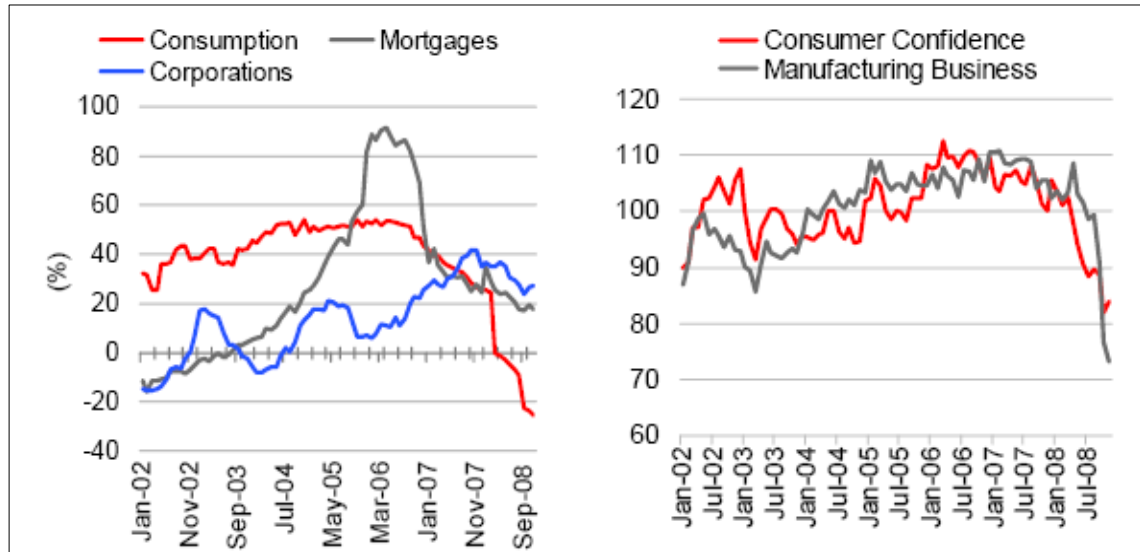
17) 2008년 멕시코의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액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25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18) 2007년말 3.7% 수준이던 실업률은 2008년에는 4.0%, 2009년에는 4.8%까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멕시코 노동사회복지부(STPS)는 2012년까지 고용상황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음.

19) 멕시코 IPC 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18일 32,851로 사상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3월 13일 현재 19,437을 기록하였음.

<그림 5>

멕시코 신용(대출)증가율 및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Fitch 재인용

2009년 멕시코 경제는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의 급격한 감소, 해외근로자 본국 송금 감소, 경상수지 적자 규모 확대 등 열악한 대외환경에 실업률 확대 및 소득 감소 등으로 내수 침체가 예상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부문은 미국 경기 침체로 수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여 2005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해외근로자 송금 감축 및 관광업 쇠퇴 등으로 서비스 및 경상이전수지 적자규모가 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과거 7년간 최대 수준인 GDP의 2.6%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 전자전기업, 유통업, 금융업, 건설업 등 주력 산업 전반이 크게 위축됨과 동시에, 실업률은 4.8%까지 확대되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1.4% 이상 축소되는 등 내수 부진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연초부터 정책금리를 8.25%에서 7.75%로 전격 인하하고 총 745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정책인 ‘가정 경제와 고용을 위한 국민협약’²⁰⁾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현재 멕시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상당한 재정지출을 하고 있고, 금년 7월중 총선이 예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재정수지 적자폭이 199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20) 동 정책은 고용지원, 가계 지원,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단기 고용 프로그램 확대, 휘발유 가격 동결 및 LPG 요금 인하, 중소기업 개발 신탁기금 조성 및 여신 확대, 국가인프라계획 예산 조기집행 등임.

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결국 멕시코 경제가 성장궤도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 회복이 선결되어야 하나,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멕시코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나. 브라질 : 15년만에 최고 경제성장률 기록,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추진

<표 10>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국 내 경 제	경제성장률	3.1	3.9	5.7	5.9	-0.4
	물가상승률	6.9	4.2	3.6	5.7	4.4
	재정수지/GDP	-3.0	-2.9	-2.2	-1.4	-1.5
대 외 경 제	경상수지/GDP	1.6	1.3	0.1	-1.8	-2.2
	상품수지	447	465	400	247	151
	수출	1,183	1,378	1,606	1,979	1,530
	수입	-736	-914	-1,206	-1,732	-1,379
	외환보유액	538	858	1,803	1,938	1,617
외 채 지 표	총외채잔액	1,873	1,921	2,294	2,396	2,201
	총외채/GDP	21.2	17.6	17.2	14.9	18.0
	D.S.R	55.4	37.1	26.7	20.0	23.0

자료 : EIU, ECLAC

2008년 브라질 경제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지만, 3/4분기까지 이어진 내수 및 수출의 동반 호조로 인해 과거 15년 만에 가장 높은 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브라질은 2006년 이후 4%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5년 만에 처음으로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여타 신흥개도국과는 달리 수출 등 대외부문이 전체 GDP의 20%에 지나지 않고, 내수 비중이 80%에 달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어,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총고정투자 등으로 구성된 내수 경기²¹⁾의 부침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수 성장의 원인은 우선 고용부문에서 연 2백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실업률이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7.6%를 기록하였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질 소득이 전년 대비 5.1%

21) 2008년 브라질의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은 각각 GDP의 60.3%, 19.8%를 기록하여, BRICs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상 증가한 데 힘입어 민간소비가 활기를 띠었다. 특히 내수 경기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판매의 경우 2008년 11월까지 약 270만대가 국내에서 판매되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²²⁾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소비재 매출 총액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재개혁 이후 세원이 확대²³⁾되어 통합재정수지 흑자폭이 GDP의 5.6% 수준으로 늘어나, 이를 배경으로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는 등 정부 주도의 공공지출이 전년 대비 5.6% 이상 늘었으며, 총고정투자율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하는 등 국내 수요 증가세가 이어졌다. 한편, 산업생산(Industrial Production)은 자동차, 광업, 철강업 등 주력산업의 호조로 인해 2008년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5.2%, 6.4%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4/4분기에는 신용경색 및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투자가 급격히 부진 양상을 보이면서 산업생산은 4.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브라질의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1,97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원자재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46% 이상 증가한 730억 달러, 반제품과 제조업 수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245억 달러에 달하였다. 수입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브라질의 경제회복의 영향으로 산업용 기계 및 원부자재의 수입이 크게 늘고 자동차 등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 대비 44.5% 이상 증가한 1,7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 이후 월별 수출 규모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커피, 오렌지, 설탕 등 주요 수출 농산물 및 광물의 국제시세 급락²⁴⁾, 주요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세로 반전한 상황이다.

수출 호조에 따른 대규모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 증가로 최근 수년간 브라질의 외환사정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는 외채구조 개선으로 이어졌다. 2008년 브라질의 외환보유액은 9월중 2,064억 달러까지 기록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 및 포트폴리오 자금 이탈 등으로 10월부터 외환보유액 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36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투자(FDI)의 유입으로 연말에는 1,942억 달러로 마무리되었다.

브라질의 외채상황은 적극적인 대외채무관리 정책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외채잔액은 2,263억 달러로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22)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판매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자동차 할부 여신 제공에 문제가 생기면서 11월에는 전월 대비 35% 이상 판매가 감소하였음.

23) 2008년 브라질의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정지출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 이에 반해 철광석, 사탕수수, 대두 등의 국제가격 하락 폭은 다소 완만한 편임.

3위의 채무국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총외채/GDP 비중이 14.4%로 크게 낮아졌고 2000년 100%대에 달하였던 D.S.R.도 2008년부터는 20% 이내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는 등 브라질의 대외지급능력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브라질 정부는 달러표시채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한편, 비거주자에 대한 헤알화 표시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어 앞으로도 외채규모는 감소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브라질의 경제기초가 강화되고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발생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연이어 상향조정하였다. 2008년 4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는 거시경제정책 및 제도의 성숙도, 외채부담완화 및 대외지급준비자산 확대, 경제성장 전망 개선 등을 이유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조정하여 사상 처음으로 투자적격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Fitch도 재정수지, 실업률 등 거시경제전반이 안정세를 유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브라질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브라질의 2009년 경제성장률을 2~3%대로 낮추어 전망하고 있다. OECD는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2009년에 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IMF와 세계은행도 3.0%의 경제성장률을 예측²⁵⁾하였다.

2009년 브라질 정부는 수년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브라질 정부는 2009년 기초통합 재정수지 흑자 목표치를 당초의 4.3%에서 3.8%로 낮추었으며, 2009년 중에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 추진 및 공공조달 등에 600억 헤알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개인소비세, 금융거래세, 공업제품거래세 등 대부분 세금을 인하하고 납부를 연기해 주는 등 재정정책을 대폭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리 인하와 최저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민간소비의 급격한 냉각 현상을 막고 경기침체로 인한 중하위층의 실질소득 감소를 상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브라질 경제는 2009년 중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하반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국내외 투자 활성화, 내수 회복, 풍부한 자원개발 잠재력 등을 배경으로 2010년부터는 4%대의 양호한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25) 이에 반해 브라질 중앙은행과 Business Monitor Intelligence는 3.3%의 비교적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하였고 Economist Intelligence Unit과 ECLAC(UN라틴아메리카 위원회)은 각각 2.4%, 2.1%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놓았음.

다. 콜롬비아 : 1999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망

<표 11>

콜롬비아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국 내 경 제	경제성장률	5.7	6.9	7.5	2.8	-1.0
	물가상승률	5.0	4.3	5.5	7.0	5.0
	재정수지/GDP	-0.4	-0.4	-0.7	-0.8	-3.3
대 외 경 제	경상수지/GDP	-1.3	-1.8	-2.8	-2.8	-4.0
	상품수지	16	3	-6	8	-9
	수출	217	252	306	381	289
	수입	-201	-249	-312	-373	-297
	외환보유액	150	154	210	237	187
외 채 지 표	총외채잔액	377	397	412	402	388
	총외채/GDP	26.0	24.4	19.8	16.7	20.0
	D.S.R	35.3	31.3	24.9	18.2	22.4

자료 : EIU

콜롬비아 경제는 2002년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치안상황 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실업률 감소 및 소득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회복, 국제 원유 및 석탄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2007년까지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는 민간 소비 및 국내 수요 위축, 물가상승압력 가중, 미국과 FTA 발효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정부 목표치인 5%대에 크게 못 미치는 2.8%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콜롬비아의 내수 부진 현상은 매우 심각하였다. 2007년 중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하였던 산업생산은 2008년 5월 이후 연말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자동차 판매는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 연간으로는 16% 이상 축소되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로 반전하였다. 또한 중남미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업률(12%)과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²⁶⁾로 민간 소비는 2007년 7.6%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1.6%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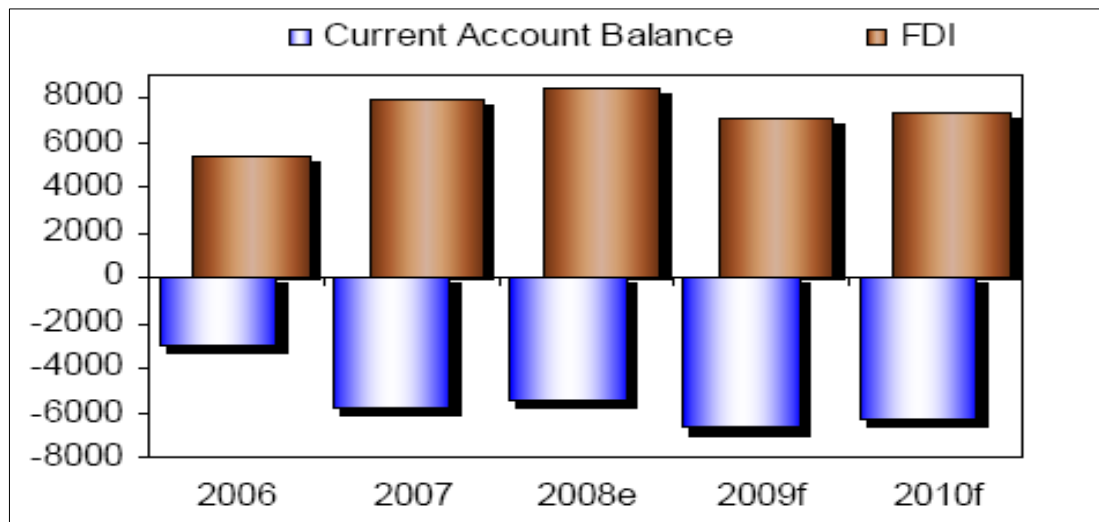
그러나, 대외 부문은 미국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수준²⁷⁾을

26) 콜롬비아 정부는 폐소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2008년 11월까지 10%의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였고, 12월에야 비로소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음.

27) Moody's는 콜롬비아 외채부문의 괄목할만한 개선, 경제개혁 지속, FDI 증가 등을 감안, 2008년 6월 종전

유지하였다. 2002년 이후 국제 원자재 시세 상승, 광업 생산 및 커피 작황 호조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으로 인해 수출²⁸⁾ 규모는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여 2008년에는 사상 최대치인 38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정부의 수출다변화 정책에 힘입어 미국 중심의 수출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등 안데스 인근 국가들로 분산되는 등 긍정적인 양상을 보여 왔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07년 95억 달러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8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치안개선, 자원개발 잠재력 등에 힘입어 브라질, 멕시코, 칠레에 이어 중남미 4위의 유입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간 80억 달러 이상이 유입되어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할 중요한 외화수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6> 콜롬비아 경상수지 적자 및 FDI 유입 추이



자료 : IIF

2009년 들어 콜롬비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총 150bp의 과감한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하였으며, 1월말에는 운송, 광업 및 에너지, IT, 상수도 등에 244억 달러²⁹⁾ 투자를 골자로 하는 ‘국가인프라확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국가인프라확충계획도 재원의 상당부분(142억 달러 이상)을 민간에서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단기간내에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Ba2에서 Ba1으로 국가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하였음.

28) 콜롬비아의 수출구조는 석유, 석탄, 커피, 니켈 등 전통산업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9) 총 투자금액 중 142억 달러는 민간부문에서 보충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동 계획이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임.

해 선방한 대외부문 역시 주력 수출상품의 국제 시세 하락,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25% 정도 감소하고 FDI 유입액 규모도 6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 콜롬비아 경제는 1999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0년 대선과 관련, 우리배 대통령의 3선 출마 여부에 대한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 인접국과의 외교관계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 정치·사회적으로도 다소 불안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 아르헨티나 : 단기적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 상존

<표 12>

아르헨티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국 내 경 제	경제성장률	9.2	8.5	8.7	7.0	-2.8
	물가상승률	9.6	10.9	8.8	8.6	6.4
	재정수지/GDP	1.8	1.8	1.2	1.5	-0.8
대 외 경 제	경상수지/GDP	2.9	3.6	2.7	2.5	-0.5
	상품수지	131	140	133	161	72
	수출	404	465	558	707	511
	수입	-273	-326	-425	-546	-439
	외환보유액	281	320	461	464	336
외 채 지 표	총외채잔액	1,330	1,222	1,358	1,295	1,159
	총외채/GDP	72.6	57.0	51.8	39.2	43.1
	D.S.R	20.6	31.3	16.9	16.3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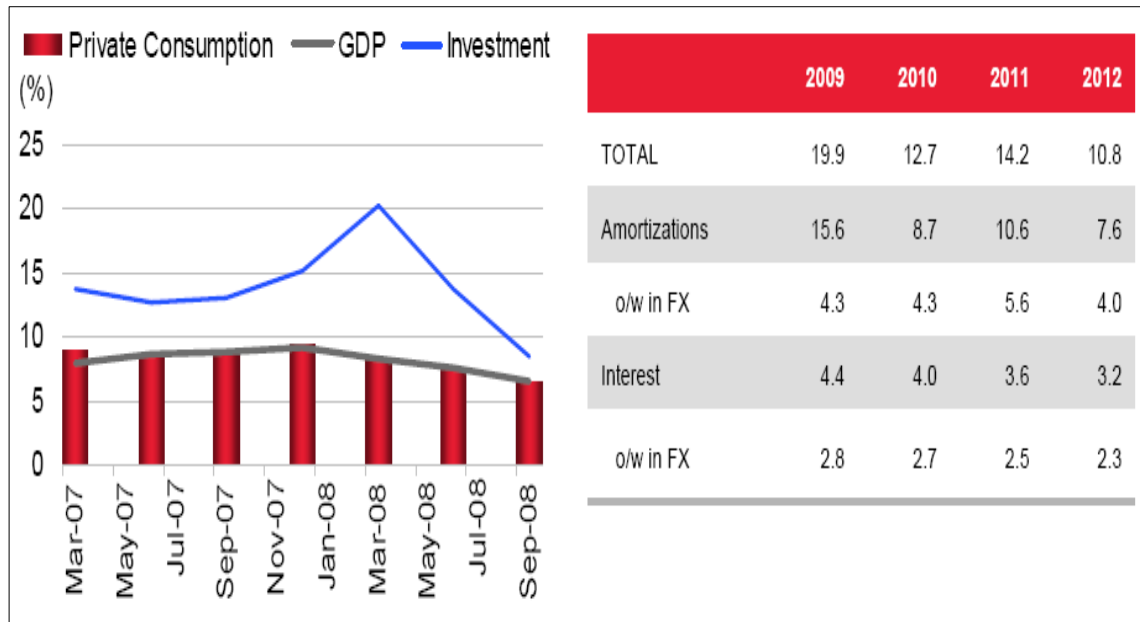
자료 : EIU

2008년 아르헨티나 경제는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민간 소비와 공공 지출 축소,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 외환 및 주식 시장 불안 현상 지속 등으로 2002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7.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2008년 중 농민 집단과 갈등 지속, 파리클럽 등 채권단과 약속 이행 지연, 민간연금 국유화 결정 등으로 국제신인도가 하락하고 있고, 2009~10년중 도래하는 외채 원리금 규모를 놓고 디폴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운용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지난해 7%대의 경제성장은 수출이 견인하였다. 상반기까지 이어진 대두,

옥수수, 밀 등 주요 수출 농산품의 국제 가격 상승에 힘입어 1차 농산품의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고 원유 및 철강 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여 수출은 사상 최대치인 70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역대 최고인 16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1년 경제위기 이후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FDI)³⁰⁾는 파리클럽 등 공적 채권단과의 약속 불이행, 외국기업과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분쟁 지속 등으로 투자환경이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42억 달러에 그쳤다.

<그림 7> 아르헨티나 경기침체 현황 및 상환원리금 추정액(% , 억달러)



자료 : Fitch 재인용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8년 4/4분기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는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2008년 4/4분기 GDP 성장률은 2003년 1/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9%를 기록하는 데 그쳤으며, 수출은 극심한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 농산물 국제 시세 급락³¹⁾, 주요 수출국의 수요 감소 등으로 2008년 12월과 금년 1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다. 또한, 산업생산은 정부측 통계에서는 금년 1월 중 4.4% 정도만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민간 경제연구소(FIEL)에 따르면 4/4분기부터 두자리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

30) 아르헨티나의 FDI 유입규모는 1999년 220억 달러로 브라질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01년 디폴트 선언으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면서 현재는 FDI 유입규모가 중미의 코스타리카 수준으로 위축되었음.

31)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농산품의 국제시세는 2008년 하반기 이후 40% 이상 하락하였음.

타났고, 자동차 생산은 2009년 들어 내수판매는 30%, 수출은 60% 이상 급감하는 등 전반적인 내구재 및 소비재 판매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해 1월 세수가 전년 대비 26% 이상 감소하였고 연중 10% 이상 세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재정수지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 민간 및 공적 채권단들과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여 자본유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비교적 안정적인 대외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자원개발 부문에 외국인투자 유입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그러나 금년 들어 쌍둥이 적자가 예상되고 외국인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디폴트 가능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금년 3월 무디스도 국제 농산물 가격 시세 급락,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베네수엘라의 오일 달러 지원 축소 등으로 2009~10년중 도래하는 약 380억³²⁾ 달러에 대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2008년말 현재 아르헨티나의 총외채잔액은 약 1,295억 달러, D.S.R.은 16.3% 수준으로 감내할 수준이나, 금년에 약 180~200억 달러의 외채가 만기 도래하며, 2010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외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환보유액이 464억 달러에 불과하고 경상수지가 2010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많아,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EIU 등 경제 전문기관들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민간 채권단과의 채무재조정 및 파리클럽 채무상환³³⁾ 등을 조속히 관철시켜 국제신인도 회복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경기회복 시점까지 대외채무 관리를 정책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요컨대, 2009년 아르헨티나는 불리한 대내외 여건에 따른 수출 및 내수 침체, 단기 유동성 악화 등으로 2001년 경제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한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사회적으로도 경기침체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³⁴⁾, 수출세 인상 관련 농민단체 갈등 지속, 조기총선 추진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국 불안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2) 아르헨티나의 중장기 상환원리금 추정액은 Fitch, S&P, Moody's의 모두 상이(相異)함.

33)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년 9월, 외환보유액을 사용하여 67억 달러에 달하는 파리클럽 채무상환을 발표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4) 키르츠너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지율이 60%가 넘었으나, 최근에는 경기침체, 고용감소, 경제위기로 인한 심화 등의 이유로 지지율이 30%대에 그침.

마. 페루 : 2008년 수출 및 투자 확대로 중남미 최고 경제성장률 기록

<표 13>

페루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억 달러

		2005	2006	2007	2008 ^e	2009 ^f
국 내 경 제	경제성장률	6.8	7.7	8.9	9.8	3.1
	물가상승률	1.6	2.0	1.8	5.8	5.1
	재정수지/GDP	-0.3	2.1	3.3	2.2	-1.9
대 외 경 제	경상수지/GDP	1.4	2.7	1.4	-3.6	-4.1
	상품수지	53	89	84	32	21
	수출	173	237	280	316	257
	수입	-121	-149	-196	-284	-236
	외환보유액	142	174	278	313	248
외 채 지 표	총외채잔액	287	282	326	356	295
	총외채/GDP	36.1	30.5	30.4	27.7	24.9
	D.S.R	25.5	12.9	21.0	14.0	13.6

자료 : EIU

2008년 페루는 미국과 FTA 체결에 따른 수출 및 FDI 유입 증가, 카미세아 (Camisea) 가스개발 및 건설 프로젝트 본격화, 공공지출 확대, 국제신인도 개선³⁵⁾ 등에 힘입어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9.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이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장의 혼란을 경험하고 9월부터 산업생산 및 소비 감소로 경제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 페루는 개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안정적 재정상황을 기반으로 투자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상대적으로 원만히 견뎌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 페루의 GDP 대비 국내총투자 비중은 26%를 기록하여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투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도 연간 8.5% 이상 증가하였다. 실제로 지속적인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주요 수출품인 구리, 아연, 금 등의 생산규모³⁶⁾는 지난해 크게 확대되었다.

35) 2008년 4월 Fitch는 적극적 재정, 외채관리 능력 향상, 외환보유액의 증가, 수출 증가 등을 감안하여 페루의 국가등급을 투자적격인 BBB-로 상향조정하였으며, OECD도 2008년 6월 국가위험도평가회의 (CRE)에서 최근 괄목할만한 경제성장 및 무역상대국 다변화 성공, FDI 유입 증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고려하여 3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음. 또한 2008년 7월에는 S&P가 재정수지 개선과 대외부문 변동성 감소로 경제 리스크 요인이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높은 경제성장률 시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적인 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환경이 건설해지고 있음을 반영하여 BBB-로 상향조정함.

지난해 페루의 수출은 상반기까지 이어진 광물의 국제시세 상승,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사상 최대치인 31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외국인투자도 광업 부문 잠재력과 미국과 FTA 체결 등에 힘입어 64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자본재와 소비재 수요 증가로 인해 수입 역시 크게 증가하여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외국기업에 대한 배당금 증가로 인해 소득수지가 9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반전하였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 광물수요국의 경기침체로 인해 2000년 이후 지속되어온 페루의 경제성장세가 상당부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물 가격의 하락폭³⁷⁾이 생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수출규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산물, 화학제품 등 비전통산업의 수출 감소세는 예상보다 크지 않으나, 구리, 아연, 금 등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연간 페루의 수출규모는 2006년 수준인 25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 유입이 축소되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상당 규모의 배당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폭은 4.1%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페루 정부는 인프라 확충, 빈곤층 지원, 공공요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총 13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다. 2009년에만 32억 달러를 투자하여 21만명의 고용을 창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연간 5%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지만, 2006년 이후 지속된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급감³⁸⁾으로 금년부터는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서 20%대로 급감하였고, 후지모리 前대통령의 법정 심판³⁹⁾을 둘러싼 정국 불안 양상 등으로 일관된 경제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2009년 페루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 목표치보다 하회한 3%대 수준으로 경제전문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

36) 2008년 페루의 주요 광물 생산증가율은 아연, 구리, 금 등이 각각 6.5%, 11%, 5.6% 이상이었으며, 2009년 들어서도 두자리수대 생산증가율을 기록중임.

37) 예를 들어 2008년 파운드당 97센트에 달했던 구리가격은 2009년 35센트 수준으로 급락하였음.

38) 금년 1~2월중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급감하였음.

39) 지난 2005년 11월 칠레에서 체포, 2007년 9월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후지모리 전대통령의 인권 침해 혐의 관련 재판(2009. 1. 28)에서 페루 검찰측은 후지모리 전대통령에 30년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최종 판결은 3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임.

IV. 한-중남미 경제협력 현황

1. 교역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수출은 2000년 93억 달러에서 2008년 332억 달러로 3.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최근 대 중남미 수출 호조는 중남미 국가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입 수요 증가, 우리 기업의 대 중남미 직접투자 증가, 기업들의 적극적 시장개척 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랫동안 5%대에서 머물러 있었으나, 2006년 처음으로 6%를 상회하였고 2008년에는 전체 수출의 8%에 육박할 정도로 뚜렷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선박, 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수출국은 멕시코(9,090백만달러), 파나마(6,464백만달러), 브라질, 칠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구리, 철광석 등의 국내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21.5% 증가한 13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수출에 비해 증가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구리와 철광석 관련 제품, 펄프, 옥수수, 수산물 등의 원자재 수입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칠레,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의 순으로 수입액이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2008년 우리나라의 상품수지는 132억 달러 적자로 반전하였으나, 대 중남미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95억 달러를 기록하여 EU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표 14>

대 중남미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

	1995	2000	2005	2007	2008
수출	7,370	9,369	14,986	25,781	33,267
(증가율)	(14.6)	(8.4)	(29.6)	(25.1)	(29.0)
(수출/총수출)	(5.9)	(5.4)	(5.3)	(6.9)	(7.9)
수입	3,964	3,263	7,017	11,324	13,756
(증가율)	(20.9)	(13.9)	(5.5)	(16.3)	(21.5)
(수입/총수입)	(2.9)	(2.3)	(2.7)	(3.2)	(3.2)
무역수지	3,406	6,106	7,969	14,457	19,511
총수출	125,058	172,268	284,419	371,489	422,007
총수입	135,119	160,481	261,238	356,845	435,275

자료 : KOTIS

2. 투자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직접투자는 총투자 기준으로 2,382건, 9,450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05년 원유, 천연가스 개발투자와 북중미 시장 공략을 위한 전자업계의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한 지 1년 만에 2008년 직접투자 규모는 3배 이상 증가한 1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 중남미 직접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0.5%에서 2007년 6.7%로 하락했지만 2008년 재차 증가하여 7.4%를 기록하였다.

한편, 투자 금액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의 섬유봉제업(중미), 대기업의 전기·전자업(남미), 자원개발투자(안데스) 등으로 구분되지만, 최근 중미 지역에 대한 섬유 봉제업 투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안데스와 남미 지역의 자원개발 부문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연도별 대중남미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해외투자	6,669	7,050	11,562	21,799	21,855
중 남 미 소 계	565	542	1,214	1,464	1,617
(비중)	(8.5)	(7.7)	(10.5)	(6.7)	(7.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3. 공적개발원조(ODA)

200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유상차관인 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의 대 중남미 지원규모는 승인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EDCF의 지원규모의 5.5%인 2,596억원 수준이며, 집행기준으로는 전체의 6%인 1,182억원을 기록하였다. 승인 규모는 2006년 전체의 8.5%까지 증가하였으나, 2007년부터의 신규 승인 감소로 전체 지원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국가별로는 에콰도르 총 2건 66.8백만달러로 가장 컸으며, 이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상원조는 프로젝트, 긴급원조, 연수생초청사업 등의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2%에서 2007년 13.2%로 높아지는 등 확대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연간 지원규모는 2006년 14백만달러에서 2007년 35.6백만달러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 16>

중남미 지역 지원현황 ('08년 12월 현재)

년도	국가명	사 업 명	승인액	비고
			백만달러	
1995	에 콰 도 르	지방통신망확충사업	15.0	집행완료-원리금회수
1998	파 나 마	의료보건 현대화사업	20.0	"
	니 카 라 과	전력망확충사업	5.7	집행완료-완공평가
	온 두 라 스	송배전망확충사업	6.0	"
2000	볼 리 비 아	고속도로 교량건설사업	23.0	자금집행중
2003	온 두 라 스	치안강화사업	2.5	집행완료
2004	니 카 라 과	후이갈파상수도확충사업	17.2	"
2005	온 두 라 스	아틀란티다병원건립사업	24.2	자금집행중
	도 미 니 카(공)	관세시스템 전산화사업	23.0	"
2006	에 콰 도 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확장사업	43.6	L/A체결
	과 테 말 라	교육정보화사업	23.6	L/A체결
	니 카 라 과	직업훈련소 확충사업	12.6	자금집행중-완공평가
2007	니 카 라 과	후이갈파상수도 2차사업	15.9	자금집행중
계 (13건)			232.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표 17>

연도별 대중남미 무상원조 지원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체 지원규모	124.1	177.1	210.0	193.5	270.2
중 남 미 소 계	6.7	8.6	12.0	14.0	35.6
(비중)	5.4	4.9	5.7	7.2	13.2

자료 : KOICA

V. 맺음말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중남미 경제의 호황기는 글로벌 금융 위기와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일단락되었으나, 건전한 경제정책을 통해 수출과 투자 증진은 물론, 물가, 재정, 외채 등 거시경제의 안정을 가져와, 중남미 경제의 펀더멘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중요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수출 및 투자 부진, 실업률 상승과 해외근로자 송금 축소에 따른 내수 부진 심화 등으로 인해 금년 중남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통화 및 재정정책을 활용한 경기부양정책 추진, IDB, CAF, CABI 등 지역개발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확대⁴⁰⁾,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비교적 강한 내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선언 및 유동성 문제가 잠재 불안요소로 지적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IMF와 파리클럽과 추가 차관지원 및 채무재조정 협의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고,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국제 원유 가격이 2월 이후 소폭 회복되고 있어, 개별국가의 리스크가 중남미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남미 지역의 경제성장은 국제원자재 가격과 미국 경제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중남미 각국은 그동안 쌓아올린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 건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국론통합을 통해 조세, 노동, 에너지 등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경제협력과 관련, 지난해 우리나라는 무려 195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중남미 시장에서 기록하여, 중남미는 EU에 이어 제2의 무역흑자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08년 8월 이후 우리나라의 총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 중남미 수출은 하반기에 평균 30% 이상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도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협력 대상지역으로서 중남미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 중남미는 더 이상 미래의 잠재시장이 아닌 우리의 주력 경험대상지역으로서 체계적인 진출 전략이 필요한 곳이 되었다.

40) IDB는 2008년 10월 60억 달러의 긴급유동성펀드를 조성, 중남미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였으며, 금년에만 180억 달러 여신승인(통상자금 120억 달러, SFO는 60억 달러)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역외 회원국들과 자본금 증자 등에서도 본격적으로 협의중임. 한편, CAF는 회원국 은행에 20억 달러의 크레딧라인을 설정하여 유동성 공급을 추진중이며, 연중 협조용자 등을 포함 160억 달러의 여신 지원을 계획중임.

우리나라와 중남미간 경제협력 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교역⁴¹⁾ 위주의 협력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인프라, 자원 등 현지 개발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중남미 경기침체는 오히려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중남미 대부분 국가는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지원, 빈곤층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중이나, 채용과 경험 부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각국의 경기부양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인프라 부문에 대해서는 사절단 파견, 정책협의회 추진 등 시장조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유상차관인 EDCF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수원국의 경제발전은 물론 현재까지 진입장벽이 높았던 중남미 인프라 시장 참여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수년간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폭락과 채용 부족으로 투자가 미루어지고 있는 중남미 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산학협력 확대, 공기업간 업무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자원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중남미 자원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

<참고문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8.
2.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9, October, 2008.
3. ECLAC, Preliminary overview of the economies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December, 2008.
4. IIF, Regional Overview : Latin America, March, 2009
5. IIF,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 Economies, January, 2009.
6. IIF, Country Report 2008~2009
7. EIU, Country Report 2008~2009
8. Latin America Monitor 2009
9. Latin Business Chronicle (www.latinbusinesschronicle.com)
10. Viewswire (www.viewswire.com)
11.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www.iadb.org)

41) 중남미 국가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대 중남미 2009년 1~2월 수출증가율은 각각 -34.2%, -18.3%를 기록하였음.